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대성산성 탐문

평양사를 돌아본 우리는 대성산의 수려한 풍치와 민족적 정서를 한껏 돋우어주며 소문 불과 주작봉사이의 평지에 물지 들어앉은 남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 강력한 요새를 이루었던 남문은 오랜 세월의 이끼속에 빛을 잃고 역사기록에만 남아있었다.

아 그곳에 낸 활구멍과 타구로 적을 사격할수 있게 하였다. 축대위에 세운 2층으로 된 문루가 아름답게 안겨왔다.

연한 구름무늬, 불꽃무늬 등의 단청무늬들... 단청들에는 칼, 창, 방패를 든 보병들과 갑옷을 입은 개마부사들이 씩씩하게 행진하는 장면들과 말탄 사냥군들이 달려들며 범과 사슴 등을 사냥하는 모습들이 그려져있었다.



대성산 탐문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유와 정의 고지시사하신다.
(위사 유적과 유물들 잘 관리하고 오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성취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의 인기를 모으는 <흑진주> 미안제품

공화국에서 유명한 평양만류화장품을 발효가공하여 만들어진 <흑진주>미안제품들이 첫선을 보인 때로부터 수년세월이 흘렀다.

연제나 젊음이 넘치는 맑고 아름다운 피부로 바라는 여성들의 마음에 꼭 드는 제품이어서 누구나 즐겨 찾는 <흑진주>

다목적화장품으로서 수렴작용과 보습작용, 영양작용을 하며 미백, 살균작용의 특징을 가지고있으며 피부의 매끈함과 촉촉한감을 유지하게 하고 주근깨, 눈기미 등을 없애준다.



미안제품은 우선 다기능적인 피부보호관리제품으로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얼골피부세포에 침착된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하게 하는 등 피부손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효과가 높다.

특히 미안비누를 사용하여 피부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미안수, 미안크림, 미안막, 한중유체를 비롯한 <흑진주>미안제품들을 서로 결합하여 쓰면 효과가 더 좋다.

민족요리 썩떡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해 먹어온 고유한 음식에는 썩떡도 있다. 썩떡은 먹는 썩에 낱알가루를 섞어 만든 떡으로서 우리 선조들은 해마다 햇썩을 뜯어다 떡을 만들어 먹었다.

한 크기로 반대기를 빚는다. 이것을 찜솥에 보를 찌고 썩낸다. 썩냄새가 풍기면서 익으면 불을 낮추고 30분정도 뜬을 들인 다음 꺼내어 절구에 잘 쳐서 떡을 빚는다.



이렇듯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여러가지 낱알과 나무, 풀 등의 독특한 향기와 맛, 자연색소들을 리용하여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으며 보기도 좋은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왔다.

썩떡을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다. 절구에 짓찧은 썩을 쌀가루에 풀고루 섞고 익반죽한 다음 잘 치대어 손바닥만

지금으로부터 18년전 흥분된 마음을 안고 평양제4소학교 교문으로 한 처녀가 들어섰다. 그가 바로 평양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김옥경이었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내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학생들의 연령심리특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부단히 새로운 방법을 탐구적용하면서 교수의 인식적효과를 높여왔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권우직년전설

전우직년전설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전우라는 총각과 직녀라는 처녀사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한 우리 민족의 오래 전설이다.

전설에 의하면 해마다 칠월칠석날 까치들을 흔히 볼수 없는것은 은하수에 다리를 놓으러 갔기때문이라고 한다.

《전우와 직녀사이》라는 말은 오늘 사람들속에서 상징한 한쌍의 청춘남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되고있으며 《오작교를 놓아준다》라는 말은 청춘들의 사랑을 맺어준다는 말로 쓰이고있다.

사화 엄세영의 결단 (2)

그는 그길로 윤현궁의 대원군(고종황제의 아버지)을 찾아가서 선유사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인사를 하고 죽동궁에서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그런데 방안에 들어서니 뜻밖에도 명성황후로부터 편지가 한장 놓여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펴보았다.

《백가가 이렇게도 사방에 모두 통하는 놀이로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길게 한숨을 지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아전도 있을가? 이놈이 얼마나 뒤가 든든하게 판을 차리었길래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놈을 일만 부락할가. 아니, 명성황후와 대원군은 원주같은 사이인데... 그렇건만 두군데서 이와 같은 한눈을 나에게 부탁까지 하니... 대관절 이놈의 뒤는 뭘때줄보다도 더 긴 동아줄 같은것이 단단히 매여져서 세상없는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도록 되어있는것이 아닌가? 이놈을... 그저 이놈을...》

그를 맞은 갑사와 아전과 모든 리속들은 환영연을 베풀었다. 그들은 웃고있었다. 그들은 이놈을 리방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들이 하는 보고란 전라도의 금년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배부르고 집집마다 안락하고 아무 고을에는 효자가 몇명이나 생겼고 려는 몇명이 있으며 어느 지방에서는 하늘로부터 봉황새가 내려왔다는 등... 도무지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었다.

7월의 절기와 민족

7월은 우리 나라에서 년중 가장 더운 삼복철이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7월의 절기에는 여름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 큰더위가 있다는 대서가 있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이며 대서는 7월 23일이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역에 있는 소나무숲이다. 창리소나무림은 크고 오래 자란 나무들과 그 밑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평양제 4 소학교 교원 김옥경
수경연들과 전국적인 교수방법토론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실리있고 우월한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 도입하였다.

고상한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기 위한 그의 노력도 남다른 것이었다. 제자의 눈에 비친 스승의 모습은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외우며 그는 교단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모범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

이 글작품집을 경애하는 김경은원수님께 삼가 올려 기쁨을 드리고 우리 교실문학상과 아동문학상을 수여 받았으며 시창작과 전국적인 알아맞추기경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7월은 우리 나라에서 년중 가장 더운 삼복철이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7월의 절기와 민족

7월에는 일반적으로 한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삼복철의 초복과 중복이 있다. 삼복철의 음식으로서는 단고기장, 초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역에 있는 소나무숲이다. 창리소나무림은 크고 오래 자란 나무들과 그 밑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7월은 우리 나라에서 년중 가장 더운 삼복철이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7월의 절기와 민족

7월에는 일반적으로 한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삼복철의 초복과 중복이 있다. 삼복철의 음식으로서는 단고기장, 초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역에 있는 소나무숲이다. 창리소나무림은 크고 오래 자란 나무들과 그 밑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7월은 우리 나라에서 년중 가장 더운 삼복철이 시작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이다.

7월의 절기와 민족

7월에는 일반적으로 한해 가운데서 가장 무더운 삼복철의 초복과 중복이 있다. 삼복철의 음식으로서는 단고기장, 초계탕, 팔죽, 비빔밥 등을 들수 있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구역에 있는 소나무숲이다. 창리소나무림은 크고 오래 자란 나무들과 그 밑에서 자라고있는 각이한 크기와 나이를 가진 소나무들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

창리소나무림

창리소나무림은 오늘도 금강산의 풍경을 한껏 돋우어 주는 자연풍치림으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로 보호하여 창리솔밭이라고 불려왔다.